

‘Chaomos’ 사진작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haomos’ Photographic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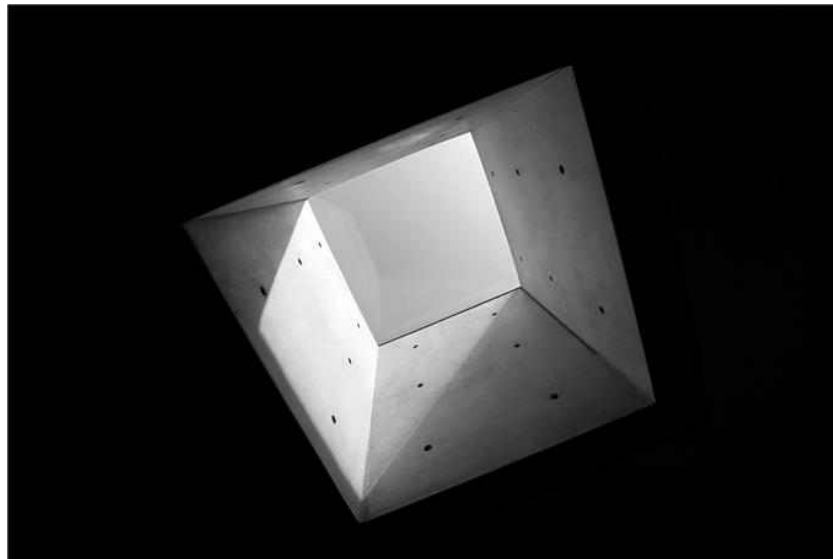
리 일 천*, 임 재 문**

사진가*, 광주대학교 사진영상드론학과 교수**

LEE, IL CHUN*, LIM, JAE MOON**

Photographer*, Gwangju University Dept,
Photography, Image & Drone Professor**

1. 작품 이미지5



Gate-wormhole, 2015

2. 작품 설명

Gate-wormhole, 2015

아인슈타인 시 공간(time-space)속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 흑(黑)의 바탕에 입체감이 거의 소멸된 사각형 도형의 빛변으로 빛 아닌 시간이 흐른다. 소멸화 된 입체의 도형 속에 또 다른 하얀 사각형 도형이 있다. 흑의 바탕에서 기원(起源)하는 시간은 그 백색(白色) 도형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그 백색 도형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無)다. 이 무(無)로 흘러가는 시간. 본 작품은 과연 시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득 하다. 우주 공간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출입구가 있는 듯 기하학적이며 초현실적인 느낌의 사진이다.

3. 작품 평론

시간을 중요한 주제로 한 작품이다. 연구자는 항상 시간에 대한 주제를 작품 속에서 다루어 보고 싶어 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적인 중요한 주제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보듯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주제이기도 했다. 또한 사진은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제에 도전하고 싶다는 것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시간은 오랫동안 사건들 사이의 간격과 그 지속 기간에 대한 양으로 생각되어 왔다. 사건, 태양의 운동, 달의 변화, 시계추의 움직임처럼, 주기적으로 운동 하는 물체들을 시간의 단위에 대한 표준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아인

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베르그송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등이 논의 되면서 객관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던 시간은 상대성의 시간, 주관성의 시간으로 변모되었다.